식량자급과 여성농민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98 여름농활 여성농민반 자료집

자주의 옥토

9기 대구경북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여는노래

참세상 농민세상 일구어가는
우리는 땅의 사람 당당한 여성이다.

까만 얼굴 짧은 머리 굵은 손마디
억센 가슴에 해방을 심는
세상의 어머니다.
흙 가슴 열고 일어서는
여성농민 농민이다.

세상이 우리더러 뭐라고 해도
우리는 땅의 사람 시작이고 끝이다.
자식치고 곡식치는
땅의 어머니
저 억센 땅에 씨를 뿌리는 세상의 젖줄이다.

§§§§ 차례는 다음과 같아요 §§§§

1. 여성농민이란 무엇인가? ------ 1쪽

- 여성농민이란
- 여성농민과 여름농활
- 여성농민의 현실
- 우리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농업의 변화
- 여성농민의 복지현실
- 가부장제문화로부터의 고통

2. 여성농민운동이란 무엇인가? --------- 7쪽

3.여성농민의 농업전문 인력화 방안 ------- 8쪽

- 여성농민의 농업전문 인력화의 필요성
- 여성농민의 전문인력화를 저해하는 요인
- 21세기 농업발전 방향과 여성농민의 역할
- 여성농민의 농업전문인력화 방안

4. 4천만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주한미군 -------- 13쪽

5. '98 여성농민 정세 --------- 16쪽

6. 심각한 농촌탁아문제 --------- 17쪽

7. 정부에 바라는 여성농민정책과제 제안 -------- 19쪽

- 여성농민정책의 기본방향
- 여성농민을 전문농업으로 육성하기위한 정책과제
- 여성농민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 여성농민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8. 분반활동 이렇게 해보자 ---------- 23쪽

9. 여성농민반 분반활동 ---------- 26쪽

여학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더위와 고된 노동일 마다앉고 농촌활동현장으로 달려온 여러분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굳은날에 농촌활동이 시작된다고 하니 반갑고 고마운 마음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학우와 더불어 여성농민반활동을 고민한지도 어느듯 5년이 접어듭니다.그간 착실하게 준비하여 발로뛰는 여학우들의 모습에 여성농민들은 깊은 신뢰를 보내며 함께 할 올해 농활을 기대합니다.

여성농민의 삶은 참으로 빡빡합니다. 농사일 집안일에 분주하여 여러분이뵙기조차 힘들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성농민의 현실입니다.

조급히 무얼 줄려고 하지말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속에서 어머니의 삶을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만나 뜻을 나누어 보십시오.

각 군마다 여성농민운동의 역량은 다양하지만 지역과 마을 실정에 맞게 여성농민들을 만나나간다면 여성농민과 여학생연대의 새 지평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

경북여성농민회연합 회장 임순분

5만 여학우들의 발길이 이제는 농촌의 들녘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긴 장마가 6월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때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한번쯤 마음을 실어 지금의 나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상반기 우리는 허주연씨의 죽음이 바로 나의 아픔이고 이 땅 식민지 여성의 아픔이기에 우리 5만 청년여학도는 허주연씨의 삶은 나의 삶과 일치시켜 여성자주화 원년의 포부를 안고 힘있게 학우들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 그들을 투쟁의 대열에 함께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반미·여성자주화의 불씨들을 농촌의 푸르른 들녘에서도 지피려 합니다. 시골의 넉넉한 인정만큼 그리 넉넉하지만은 않은 농촌의 현실이기에 그 속에서 우리 여성농민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시기에 이 또한 우리들은 마다하지 않고 그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흙속에서 자신의 삶을 억척스레 일궈가는 여성농민들의 삶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삶이요 내가 받아 안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시 투쟁의 연속으로 농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농활을 맞이하여 이제는 좀더 통크게 여성농민들을 우리의 투쟁의 주체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여성농민반 활동은 아주머니들과 한번 신나게 놀아주는 것은 아니라 함께 반미 여성자주화의 길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주체로서 바라보며 농활을 전개해야겠습니다. 한 분의 여성농민이라도 함께 그 주체로 세워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우선시 되어야 겠습니다.

6월이 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 흐르는 세월만큼이나 우리 가슴속에 여성민중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더욱더 다져가는 청년여학우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다져가고 좁더 충만한 여학생운동을 그려갈 수 있는 그 모태를 이곳 98년 반미 여름농활의 여성농민들 속에서 찾아갑시다.

자주의 옥토
9기 대구경북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
윤 은 경

여성농민은 누구인가?

1. 여성농민이란

여성농민은 농촌인구의 절반 이상이며 농업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농가경제의 주요 담당자이다. 그러나 여성농민에 대한 시각을 80년대까지는 단순히 농촌주부로써의 개념에 농사일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생산보조세력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80년 중반부터 개방농정의 가속화 농업형태의 변화 등으로 농업노동에서 여성노동력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의 주체적 인식으로 계급적 용어인 "여성농민"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여성농민은 농업의 보조자, 주부가 아닌 생산의 주체로써 농촌의 여성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제는 여성농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여성농업인으로 칭하고 있다.
여성농민은 한 마디로 여성문제와 농민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2. 여성농민과 여름농활

농활은 농민·학생 연대의 꽃이다.
학생들은 농민들의 삶과 투쟁을 배우고 농민은 학생들로부터 사회구조의 모순과 정치정세를 올바로 보는 관점을 배워 정치의식을 높임으로써 학생들과 함께 변혁의 주체로 동지로 서게 된다. 또한 힘든 노동으로 농업생산에 참여하며 사회의 봉건적 지배의식에 순응하면서도 사회와 역사의 발전을 이끌어온 여성농민과 사회의식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이끌어 가는 학생들의 진보적 여성의식과의 만남은 이 사회구조속에서 여성농민과 여학생 억압의 여성적 동질성을 일깨우고 함께 싸워나갈 가능성의 단초를 열게한다.
농학연대란 농민과 학생이 함께 일하고, 싸우고, 배우면서 이땅의 주인은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현하는 것이다. 결국 농민·학생 모두 농활을 통해 각각의 역량 강화에 목표를 둔다. 이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학생들은 고생한 기억만이 남을것이고, 농민들은 일손을 좀 덜고 학생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정도에 그치고 말 것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농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농민과 학생서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때 각자 단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농학연대가 상호 운동의 조직적 성과를 이어져야만 우리 연대의 앞날은 빛날 것이다.

3. 여성농민의 현실

1) 우리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농업의 변화

1960년대 이후 개발과 개방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으로 진행해 온 급속한 산업화정책은 농업을 몰락시키고 식량자급기반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으며, 농민을 이 사회의 최하위 계층으로 만드는 파행적 사회구조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농민이 저곡가, 저농산물가격, 외국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개방정책하에서도 농업생산에 종사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환경을 지키며 우리농업을 유지, 발전시켜왔다는 것을 사실이다. 이제 여성농민을 생산기여도가 52%, 절반의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성농민들의 노동 없이는 농업이 유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농민이 이러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생산자로서의 경제적 보장과 사회적 지위확보,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의 개선, 복지혜택 등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사회참여는 증대되고 있고 이에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사회 정책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민들의 사회적 지위확보와 복지혜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① 여성농민의 노동부담이 과중하며 더욱 증대해 가고 있다.

여성농민의 농업노동 시간을 보면 농번기에 여성이 투하한 노동시간은 1966년에는 3시간 25분으로 70년대 이전까지는 여성이 농업생산에서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9년에는 9시간 46분을 노동시간이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986년에는 11시간 21분을 농업노동에 투하하여 농번기 여성농민의 노동은 도시 근로자의 8시간 노동에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과중함을 알 수 있다.

농사와 가사노동을 합친 전체 노동시간도 농번기, 농한기 할 것 없이 농촌 남성들이 노동시간에 비해 하루평균 41분-1시간 54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60-70년대 중상정책으로 농업이 희생당하면서 농촌인구의 이농과 곡물농업의 가격이 불투명해지면서 하우스 농사 즉, 채소나 특용작물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여성농민들의 노동력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과중한 노동투하는 요통, 어깨결림, 신경통 등의 농부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만성적인 부인병을 갖게 만들었고 근래 하우스에서 노동이 많아지면서 이름모를 질병까지 동반하게 되었다.

(여성농민의 수기 중에서)

새벽 4시 기상. 밥을 안치고 돼지밥, 개밥 등 나를 기다리는 원수같은 짐승들에게 밥을 준다.
아이구, 이놈들은 나보다 밥을 먼저 먹네그려.
어제 남편과 아이들이 이리저리 던져놓은 빨래거리를 주섬주섬 담아 하이타이 풀어 물에 담궈 놓고 마당에 후다닥 비질을 한다. "나라가 농민을 팔아먹네, 쌀이 수입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여" 주절주절 거리며 술취해 들어온 남편을 위해 술국을 끓여놓고 집앞 손바닥만한 밭에 이리저리 김매기를 하고 들어오면 벌써 6시.
"야들아, 해가 중천이다. 빨랑빨랑 일어나 세수하고 학교가여"칭얼거리는 아이들에게 학교갈 준비 하라고 소리지르고 도시락을 싸야 한다. 큰애가 고등학생이고 작은애가 중학생이라 도시락을 세 개나 싸야한다. "이놈의 도시락 좀 안싸면 소원이 없겠네, 학교에서 밥 좀 주면 안되나"하고 푸념을 한다.
일하려면 밥을 먹어야제. 부엌구석에 쭈그려 앉아 김치 쪼가리를 놓고 먼저 밥을 먹는다.
밥을먹고 세탁기에 빨래를 젭싸게 돌려놓고 하우스 문도 열어놓고 산중턱 밭에 가서 김치거리를 뽑아놓고 밥상을 차린다. 빨리 밥 안준다고 투덜거리는 남편, 아이들은 도시락 반찬이 맘에 안드니, 무슨무슨 성금을 나만 안냈는데 하며 조잘거린다.
밥 다먹고 설거지 통에 빈 그릇을 담궈놓고 정리한다.

아침 9시 오늘은 고추하우스로 일 가기로 했다. 품값 받는 일이 아니라서 9시에 가는 것이지 다른때 같으면 7시에 가야한다. "빨리 안 나오고 뭐혀!" 남편의 호통소리가 들린다. '내가 놀면서 안가는감'설것이와 빨래하는 것도 일 안가고 꾸물대는 것으로 간주하는 남편의 등살에 연장을 챙겨들고 나선다.
옆집 고추하우스 일은 무척이나 힘들다 땅을 고르고 모를 날라주는 일은 남자들 몫이지만 구부리고 앉아 하루종일 모종을 이식하는 것은 여자들이 해야한다. 어두워서 고추모가 보이지 않을 즈음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부엌으로 직행, 저녁밥을 안치고 반찬을 준비하고 아침에 돌려놓은 빨래를 방구석에 넌다. 뒷결에다가 개죽을 끓이고 돼지에게 사료를 한 대야 퍼주고 배고프다고 재촉하는 남편성화에 저녁밥을 들이밀고 아침에 재워놓은 김치거리를 마무리하여 김치를 담근다. 이일 저일 다 마치면 12시, 방바닥에 등을 붙이니 몸이 천근만근, 내일고 이런 일을 계속해야하니, 아이구 내 팔자야... 이건 일꾼인지 상머슴인지... 이런 저런 생각도 잠시, 곧 코고는 소리만 들리고 밤은 깊어만 간다.

②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이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노동은 남성들과 같이 농업생산 활동을 하면서도 일반 주부들과 마찬가지로 가사노동, 자녀의 출산양육이라는 재생산 노동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농민은 관습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가사노동과 농민으로서의 요구되는 생산노동을 이중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지역 주민으로서의 많은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농민의 경우 대부분 농업생산과 가사와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두 역할을 혼합된 형태로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그 내용을 구별하기 어렵

다.
즉, 여성농민을 생산노동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여성농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히면서도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노동부담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생산노동에 절대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성농민의 가사노동은 더 이상 가정내의 주부의 역할로서만 규정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여성농민의 가사노동을 사회화할 수 있는 여성농민의 생산노동을 직업으로 인정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전문 농업경영자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③ 여성농민의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농민들의 과중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을 하면서도 농업생산자라기보다는 농가주부로 인식되어 여성농민의 사회적 생산자로서의 역할에 맞는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농가경영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농업보조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농활동에 있어서 농사일정과 품목결정, 영농자재 구입, 농지구입과 매각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로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농민이 주로 참여하는 밭농사의 경우 기계화가 부진하며, 각종 농기계는 여성에게 부적합한 구조로 되어있어 여성의 노동생산성을 낮추며 그 결과 여성농민의 노동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영농교육이나 농기계 구입보조, 정책자금 지원, 농협참여, 영농법인에서도 여성농민은 배제되어 전문영농인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다.

④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의 사회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우리 농촌사회는 오랫동안 지역사회활동에서 여성들이 제외되어 왔다. 특히 농촌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제한적이어서 여성의 특유한 사고와 아이디어가 반영되지 못하였다. 여성들의 집약된 의사가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면 남성중심의 사고에서 묵과해버릴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살아나 여성의 논리로서 문제를 발전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민주적인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농수축협 등 각종 협동조합과 직능별 생산자단체에서도 여성농민의 참여나 지위 역시 매우 낮은 현실이다. 95년 농협법의 개정으로 복수조합원제가 도입되어 여성농민의 협동조합 참여의 길이 일부 트이기는 하였으나 복수조합원의 가입자격에 제한을 둠으로써 협동조합의 원칙하에 많은 여성농민들 조합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므로서 협동조합의 정신에 의거 여성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결정하거나 여성농민이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여성농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지위 또한 별로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2) 여성농민의 복지현실

여성농민이 누리고 있는 복지혜택 정도는 의료보험상의 혜택, 보건소를 통한 부인병 검진, 남편에 편입된 농어민연금과 탁아 교육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생산의 선봉에 서고 있는 여성농민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복지혜택조차도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전면수정을 요할 정도이다.

"병이 없는 여성농민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여성농민들의 건강상태는 악화되어 있다.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농사일과 이에 따른 농부증, 농약중독, 농업재해, 산전산후 조리 못함, 유산, 영양부족, 남편으로부터 매맞음....

하나하나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농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은 많다. 더구나 농촌의 의료시설은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곳이 태반이고 있다 하더라도 낮은 질의 의료행위로 거의 의료해택을 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농어촌 인구가 전국민의 30%임에 비해 농어촌 의교기관은 14% 의사는 9% 수준임) 기껏해야 보건지료소를 찾아가는 일, 병원이라도 갈라치면 하루에 몇번 안 다니는 차시각에 맞춰 읍내로 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하루 해를 꼬박 잡아야 가능하다. 결국 농촌에서는 돈도 없거니와 여유도 없어 별원엘 좀처럼 갈 생각도 않는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고싱 약국이요, 항생제나 진통제를 오용 또는 과용하게 되어 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몸이 아플 때 쉽게 찾는 의료시설을 보면, 약국 47.6% 병원·의원 30.7% 보건진료소 8.9% 한의원과 보건소 등의 순으로 이용하고 있다.)

"모성보호"란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여성의 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는 출산후 60일 유금휴가가 보장되어 있으며 90일로 유급휴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민들의 경우 출산직후 건강을 보호하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농업노동의 현장에 복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의료보험제도는 이중, 삼중으로 농민을 수탈하는 세금이 되어 버렸다.

3) 가부장제 문화로부터의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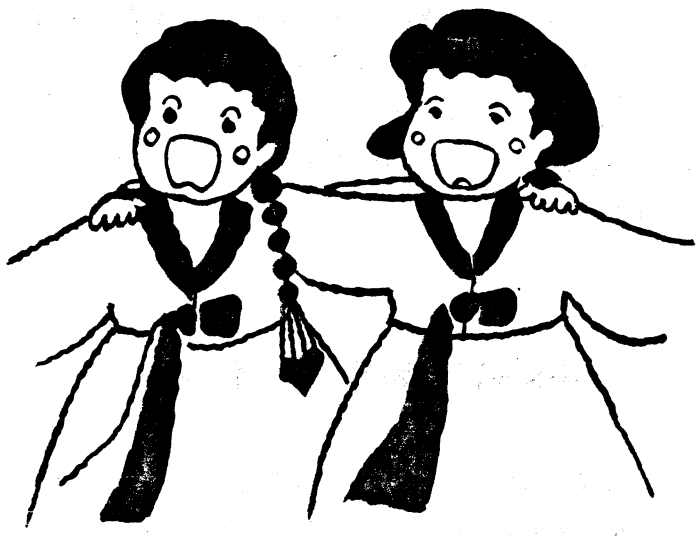
가부장제 문화는 여성농민의 거의 모든 생활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다.

농촌사회는 도시에 비해 봉건의식의 뿌리가 광범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뿌리깊은 봉건성으로 인해 여성농민의 지위는 남편의 지위나 능력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성차별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으므로 농민적 고통과 더불어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까지 가중되어 한층 더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

도시에서는 매맞는 여자를 위한 상담소나 피신처가 마련되어 있으나, 농촌에서는 매맞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일비재 하다.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 남편, 시부모 공양과 육아의 부담을 분담키 어려워 잠깐이나마 집 떠나는 일이 아직도 어렵다.

앞에서 언급했던 노동할 의무만 있을 뿐 아무런 권리행사릐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이 이 가부장제 문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를 이용해 침묵만을 강요하는 정부정책과 정권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농업정책 어디를 보아도 여성농민을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여성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어는 행정기관을 보아도 여성농민 담당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농민을 도원하는 행정체계는 존재하지만 여성농민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은 여성농민회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봉건적인 사회환경을 개혁하는 것 역시 여성농민의 지위를 높이느데 있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여성농민의 개인문제, 집안문제 극복수준으로 협소하게 다뤄질 것이 아니라 농촌사회내의 전반적인 봉건성 극복과 민주적 생활풍토 조성, 올바른 공동체 정신을 세워 나간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과제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여성농민운동이란 무엇인가?

여성농민운동은 여성농민을 억압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관습적 구조를 깨뜨려 가면서 여성농민이 반외세, 반독점(자주, 민주, 통일)의 사회운동의 주인으로 나서는 것이다.

여성농민은 전체농민의 절반의 사람이므로 당연히 농민문제 해결의 주체로 서야 할 사람이다. 또한 아무런 지위도 없는 농업노동자에 불과한 여성농민이 생산의 주역으로서 올바르게 인정을 받아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여성농민운동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여성농민의 자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며 WTO체제하에서 올바른 농업생산주체로 서서 전체 여성농민들과 함께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즉, 간단히 말해 '여성농민이 처한 여러 문제점들을 여성농민들이 주인이 되어 해결해나가는 움직임'이다.

오랜 역사속에서 여성을 억압해온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요되고 길들여지 모습을 살고 있는 여성농민들은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일깨우고 일으켜 세워야 한다. 실제로 여성농민운동의 역사속에서도 많은 여성농민들이 이러한 굴레를 깨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내 왔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체면에 얽매이지 않는 정의로움 품성과 모성애적인 끈기를 가진 사람이며 일할 때도 놀 때도 함께하길 좋아하는 타고난 집단성과 조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80년대 중반 수세투쟁, 고추투쟁 등 수많은 농민투쟁의 현장에서 생산주체로서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었다.

이런 투쟁의 현장에서 발견된 역동성을 조직의 힘으로 모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으로 서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바로 여성농민운동의 시발점이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억압된 계급적 구조와 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여성농민운동은 바로 2천만 여성민중들의 자주성 찾아가기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여성농민운동의 방향과 내용

☼ 방향은 - 여성농민을 억압하는 제 세력과 사상과의 싸움
- 여성농민이 한 인간으로써 자주성의 회복과 고양, 자기 주권의 획득과정을 통해 역사발전의 주체로 서는 것
- 전체 사회변혁운동의 총량을 높이고 한국사회 변혁운동에

올바르게 복무하는 것

☼ 내용은 - 여성농민의 생산주체화를 통해 농업의 올바른 발전에 기여
- 여성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
- 여성농민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지위 향상

여성농민의 농업전문 인력화 방안

- 전여농 김성숙 정책실장님 -

이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정경유착에 의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수출위주의 공업화 정책을 최고의경제가치로 삼은 우리 경제의 허상을 한눈에 들여다 볼수 있었다. 농업의 경우 그동안 경제개발과정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경제개발에 따른 고통을 전담해 왔다. 농업, 농민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식량대란으로 뿌리채 흔들릴수도 있었던 최근 우리경제의 파국을 막아낼 수 있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농업정책이 요구된다고 할수 있다.

.....이하 중략.....

이글에서는 21c농업의 전망과 우리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인 여성농민의 농업전문인력화의 필요성과 농업전문인력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여성농민의 농업 전문 인력화의 필요성

1) 여성 농민의 농업전문인력화란

여성농민이 농업에 있어서 농업노동의 보조자가 아닌 농업경영, 기술에서 주체가 되는 농업전문인으로 육성됨으로써 여성농민이 농업에 있어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을 말한다. 즉 여성농민이 단순한 농업 생산노동만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서 농업경영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농업소득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할수 있어야 하며 농업에서 앞으로의 자기 발전전망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2) 여성농민의 농업전문인력화의 필요성

ㄱ) 여성농민의 농업에서의 역할 증대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여성농민의 수가 늘어가는 추세이며 여성농민의 농업참여정도를 농가의 농업노동 투하량(농림부, 농가경제 조사결과)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이 65년 28%, 70년 33%, 1975년 33%, 80년 43%, 90년 47%, 95년 48%로 높아졌다.

95년의 경우 가족노동의 45.9%와 품앗이 노동의 62.1%로 여성노동으로 우리 농업에서 여성노동의 역할이 지대함을 알수 있다. 앞으로 우리 농업발전의 핵심은 농업구조개혁과 농업주페인력의 확보라 할수 있으며, 농업주체인력의 확보에 있어서 우리농업 생산활동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민으 농업을 지켜낼 확실한 농업주체인력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민을 배제한 현재 전업농이라는 일부 선별적인 농민의 육성만으로는 농업발전이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ㄴ) 여성농민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생산의 극대화

여성농민의 농업노동에의 참여는 6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하지만 여성농민의 과중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노동가치는 낮게 평가되어왔다. 그이유는 농기계를 사용하지않음에서오는 비능률성, 가사와 농업노동이 구분되지 않는데서 오는 비전문성등으로 노동은 과다하게 하지만 노동생산은 노동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진 못했다. 현재 농촌노동인력의 삼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여성농민이 농업노동에서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여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농업생산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식량자급의 기반이 될 것이다.

ㄷ) 농업의 과학화와 농업경영능력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농업에서 과학영농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작업의 능률향상을 위한 기계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현실에서 생산활동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농민을 제외하고는 농업생산에서 과학화와 능률화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농업의 과학화는 농업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농업경영에서도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농업과 같은 새로운 농사기술, 가공·판매기술등 복합적인 농업기술을 익히고 실생활에 응용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여야 하며, 여성농민에게 적합한 농기계 사용 기술 작업시간 배분이나 능률적인 작업관리 기술 등을 익힘으로써 농작업의 능률화를 이루어야 한다. 규모있는 살림살이를 더잘해 나가는 것은 여성농민이며 가공의 전문가도 역시 여성농민이다. 미래 농업에서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농산물 1·2차 가공과 유통산업까지 농민이 참여해야만 농업소득을 높여낼수 있다. 농업경영에서 여성농민이 주체적으로 농사계획을 세우고 각종 농사 및 가격, 가공·유통정보를 수집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판매에 따르는 손익계산과 평가를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여성농민도 경영능력을 갖도록 요구받고 있다.

ㄹ) 주체적 직업의식과 성취동기의 부여

여성농민의 상당부분 스스로 농업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니오히려 농업인이기보다는 가정주부이기를 원한다고 할수 있다. 보수도 없이 강도높은 노동을 해야하는 우리 농업의 현실, 직업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가족경영에서 조차 소외된 농업조동의 보조자인 현지위에서 가정주부로써 역할만으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

이다. 하지만 여성농민을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은 여성농민이 농업을 직업으로 의식하고 농업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경영에서 공동경영자로서 위치지워지고 공동경영자인 여성농민의 농업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수가 주어진다면 여성농민에게 경제적인 성취감까지 갖게 할 것이다.
여성농민 스스로가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농업에 임할 때 농업발전과 사회발전을 이루어 낼수 있다.

ㅁ) 후계인력의 육성
기계화가 이루어지지않은 토지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노동력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며, 새로운 인력의 유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현재 뒤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성농민은 훌륭한 농업후계인력이 될 수 있다.

2. 여성농민의 전문인력화를 저해하는 요인

ㄱ) 정부의 농업정책
ㄴ) 성별분업에 따른 고정관념
ㄷ) 농업전문교육에서의 소외
ㄹ) 생산자 조직에서의 소외
ㅁ) 농업경영에서의 소외

3. 21C 농업발전 방향과 여성농민의 역할

ㄱ) 21C 우리농업의 전망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전업농이 아닌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경영의 협동화와 지역중심의 자율농정으로의 변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농업으로 지속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업기술과 환경을 조화시켜 화학적 농법의 부작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할수 있게 하는 농업)

ㄴ) 21C농업에서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
농업에서의 여성농민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작업과 여성농민의 지위에 있어서도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지위와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4. 여성농민의 농업전문인력화 방안

ㄱ) 여성농민을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의 확보
여성농민은 농업노동의 절반이상을 담당하는 생산자 농민이며, 가사노동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생산자 농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업경여 및 지역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농민에게 법제

도적으로 적극적 의미의 생산자(농업전문인력)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농민을 농업의 주체로서 공동경영자로 사회적지위가 명확해 질때까지 잠정적으로 여성농민에 대한 적극적인 차별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ㄴ) 여성농민의 경제적 지위향상

여성농민 노동(농업노동, 가사노동)에 대한 저적 보수의 확보와 결혼후 취득한 재산에 대한부부공동재산제 인정, 재산상속에서 실제로 경영에 참여해 온 여성농민에게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며, 부부의 대등한 연금가입을 통한 노후 생활보장이 이루어 지는 속에서 여성농민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갈 것이다.

ㄷ) 여성농민의 농업경영능력의 확대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위해 일정비율 할당제가 30%이상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기술과 경영교육을 여성농민에게도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여성농민 생산자 조직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ㄹ) 여성농민을 위한 농업생산조건의 개선

여성농민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건의 개선을 위해 기반정비와 여성농민의 신체조건에 맞는 농기계·농기구 개발 보급이 이루어져 농작업에서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농민의 생산활동 지원으로서의 복지실현을 위해 여성농민의 가사노동 경감을 위해 탁아시설 확대와 농어촌 중고교 학교급식의 조기실시와 여성농민의 노인부양 경감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등과 임신, 출산, 질병시 농업노동이나 가사노동을 대행해주는 영농 및 가사에 대한 대행서비스제를 도입해야한다. 그리고 여성농민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확충하는등으로 여성농민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결론

여성농민들은 지금까지 우리농업을 이끌어온 농업생산의 한축이며, 21C 농업에 있어서 여성농민의 역할은 확대되어질 것이다. 가족경영이 농업생산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농업에서 여성농민은 후계인력으로 농업경영인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적인 고려와 법·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은 여성농민을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농업·농촌 기본법] 제정시'여성농민의 농업전문인력화'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또한 여성농민정책 시행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관련 제반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우리농업에서 최대의 후계인력이며, 농업경영인으로서 자질을 갖춘 농업인임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 우리농업의 계속적인 유지·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참깐교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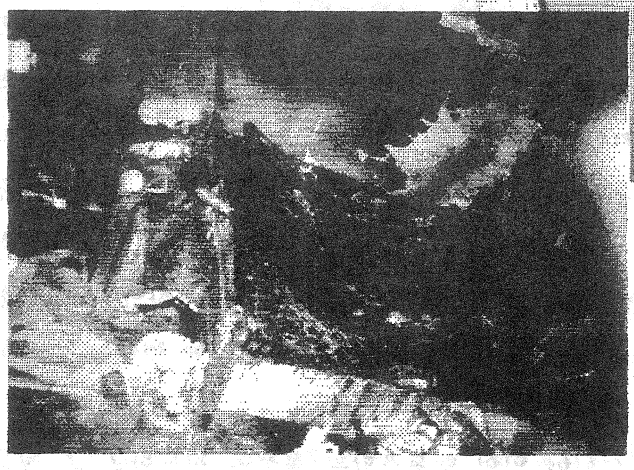
농협복수조합원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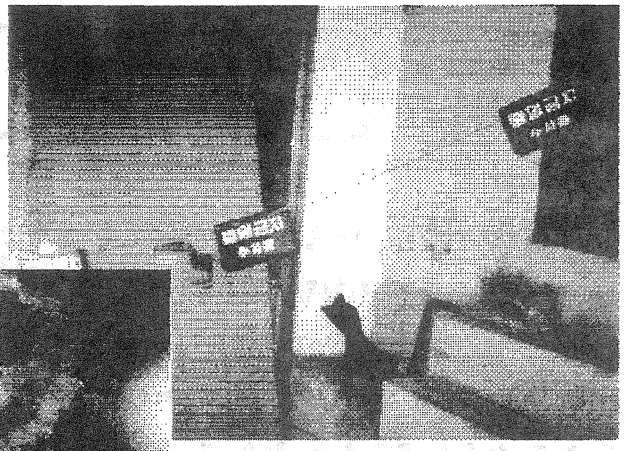
1994년 12월, 1가구 1조합원제를 규정하던 농협법이 개정되어 1가구 2조합원제의 제한적인 복수조합원제가 시행됨으로써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농민의 농협참여의 길이 조금이나마 트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 농협법 시행령의 '지역 및 전문 농협의 정관(예)'에서 농협 복수조합원의 가입조건을 '1. 동일가에서 가구원이 각각의 경영책임을 지고 업종을 달리하는 경우, 2. 농업인 후계자·전업농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지정 또는 양성하는 후계세대 가구, 3. 동일가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가구원이 55세 이상이거나 경영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복수조합원제의 제한적 실시는, 우선 협동조합에 있어 문호개방의 원칙에 벗어남을 지적할 수 있다.

문호개방의 원칙이란 협동조합을 구성함에 있어 협동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자격을 주어야 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제한된 복수조합원제의 실시는 지금까지 호주된 여성단독가구가 아니고서는 조합원으로서의 참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한 것에 있어서는 대단히 발전적이나, 문호개방의 원칙에 따라 규정된 출자금을 바탕으로 조합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문을 열어 더 많은 농민들의 협동조합 참여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복수조합원제의 실시와 함께 각 단위농협에서 여성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도 또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전국적으로 지역농협의 여성이사가 5명, 여성감사 1명이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조합원 2,010,351명중 239,368명(1996. 6월말 현재)이, 복수조합원의 경우도 3,755명중 417명(1996. 6월말 현재)이 여성조합원으로, 1993년 말 전체 조합원 1,956,159명중 여성조합원 160,479명으로 8.3%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촌사회에서 여성농민들의 새로운 역할변화와 더불어 앞으로 여성농민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4천만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주한미군





(지난 1월에 주한미군에 의해 살해당한 허주연씨 자취방)

1987년 11월 동두천시에 살고있는 박춘봉씨는 아직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미군 병사에 의해 면도칼로 목이 잘린 채 사망하였다. 후에 범인이 미군이 잡히고 3년형을 살고 제대했다고 하나 모든 것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없다.

1988년 9월 3일 임산부인 조경옥씨는 아무 이유 없이 미군에 의해 구타를 당하여 임신중인 아이가 낙태되었으나 미해결 처리되었다.

1991년 1월 8일 오후 4시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 2리엣 미8군 수송부대 소속 찰스 유진버처 상병은 집으로 최모양(9세, 초등학교 2년)을 지프에 태워 차 안에서 성폭행을 하고 6월 3일까지 10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1년 12월 24일 징역 3년형 구형을 받아 천안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1992년 7월 여종업원을 미군병사 3명이 깨진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자궁을 찔러 앉은뱅이

로 만들었으나 미해결 처리되었다.

1992년 10월 28일 새벽 2시경 윤금이씨(26세)가 미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20세)에 의해 머리를 콜라병으로 난타 당하고 자궁에 콜라병이 박히고 항문에는 우산대가 꽂힌 채 살해되었다.

1995년 6월 9일 한국인 여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8군 군속 제임스 케이리가 미군 당국과 검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김포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도주했다.

1996년 9월 7일 새벽 4시 30분경 비 2사단 소속 에릭 스티브 뮤니크(22세) 이병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기순씨 한테 면박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기순씨의 얼굴을 때려 실신시킨 뒤 흉기로 목을 세 차례 찔러 살해했다. 뮤니크 이병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고 현재 항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월 15일 오후 10시경 허주연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제이에스 클럽에서 미군 핸릭스 티모시 제롬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16일 0시 20분경 클럽에서 150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자취방으로가 함께 잠을 잤다. 제롬은 3시 30분경 부대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허주연씨가 함께 있자며 자신을 붙잡자 오른쪽 팔꿈치로 허주연씨의 명치를 때려 숨지게 하였고 이어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허주연씨가 누워있는 침대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허주연씨의 침대 등 방안의 가재도구를 태웠다. 제롬은 자신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싫어하는데 허주연씨가 줄담배를 피우고 자신을 귀찮게 하여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였다.

주한미군 기름유출 백운산계곡 오염
두달째 사고현장 공개 거부

주한미군이 부대 기름유출로 경기 의왕시 백운산 골짜기 일부를 오염시켜놓고도 두달째 사고 현장의 공개를 거부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미군쪽에 오염물질 제거와 계곡의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미군쪽으로 부터 답신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범죄행각은 끊이질 않고 있다.

미군범죄의 실태는 1945년 9월8일 미군이 주둔한 이래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어 온

사회현상이 되어버렸다. 1967년부터 1987년까지 근 20년동안 발생한 미군의 범죄는 총 39,452건으로 하루 평균 5건, 연평균 2,200건이다. 그동안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 율은 고작 0,7%이다. 그리고 93년 이후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율은 2%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에 의해 입건된 통계자료일 뿐이다. 따라서 기지촌 주민들이나 매춘여성의 경우 범죄를 당하고도 신고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규모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범죄는 지금까지 발생되어 온것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고질적이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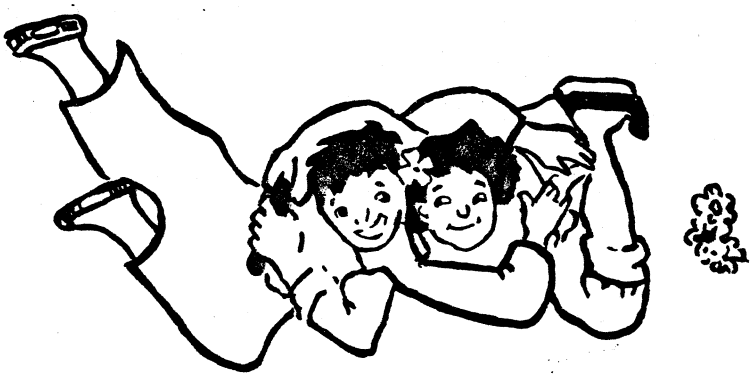
또한 주한미군의 범죄행각은 4천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우리 국민들은 매년 미군 한명 당 약 6천 2백만원을 방위분담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9억 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그만한 돈이면 지금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도산문제와 200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실업자 문제, 주택문제, 교통문제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주한미군의 철수없이는 민족의 자주권 · 생존권을 되찾을 수 없다.

군산기지 민항사용료 문제에서도 제 2의 국치라 불리우는 IMF 경제침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주한미군을 이용하여 한국의 예속화를 공고히 하려고 한다.

여름농활을 통해서 우리는 농촌문제의 실상을 깨닫고 자주 · 민주 · 통일의 한길에 같이 연대투쟁을 벌일것을 다짐하는 장인만큼 주한미군의 만행을 알려내지 않으면 민족의 살길은 없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농민분들을 만나가야 할 것이다.



98' 여성농민 정세

"여성농민 노동의 값이 제대로 인정되어야 여성농민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됩니다."

1.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방도

여성농민의 생산노동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개혁을 통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괴고 WTO 체제하에서 최소시장접근 물량 등 수입 농산물의 시장방출 관리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하며 밭작물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WTO이행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콩, 참깨 등 수입농산물에 밀려 사라져 가는 우리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경작농민에 대한 작목 지원 차원의 직접지불제 도입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성농민 노동의 기계화 추진과 밭의 기반정비, 여성농민의 농업 전문인력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아울러 농가의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여성농민의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평가로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에도 반영이 되도록 하며 손실보상과 사회보험, 산업재해보험 평가 등에도 가사노동 가치가 공정하게 반영되도옥 해야한다. 또한 여성농민의 공익적 노동과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식량자급의 중요성과 식량자급을 위한 여성농민과 농민들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서 소비자의 우리 농산물 애용과 북한 옥수수 심기와 남북농업교류, 식량자급과 농가부태 해결운동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한다.

2. 주곡자급과 생산에서의 여성농민의 역할

쌀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4.5%밖에 되지 않는다. 밀, 옥수수, 콩, 깨, 팥, 녹두 등의 곡물은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콩의 재배면적은 1981년 188,431정보에서 96년에는 97,989정보로 줄었으며 생산량도 256,851톤에서 160,081톤으로 줄어들었다. 참깨 생산량도 80년대에는 꾸준히 늘어 88년에는 52,353톤에 이르렀으나 96년에는 29,370톤으로 줄어들었다. 이렇듯 대부분의 곡물수요가 국내생산보다는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콩농사와 참깨농사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하고 있다. 밭작물의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여성농민들이다. 그간 텃밭에서 여성농민들과 애환을 함께하며 때론 주식으로 때론 민족의 건강을 책임졌던 영양섭취로 자리 잡았던 잡곡과 부식등이 완전한 시장개방으로 수입농산물로 인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여성농민들의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밭작물에 대한 정당한 가격보장과 노동의 대가를 실현을 하루빨리 이룩하고 또한 여성농민의 손으로 식량자급도 이루어내어 여성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해 콩, 깨, 고추, 마늘, 양파, 감자 등 여성농민들이 주로 생산하는 밭작물의 생산비 조사활동을 펴야 하며 여성농민의 생산노동가치 보장을 위해 밭작물 가격보장등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을 벌임과 함께 여성농민의 가사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평가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가부채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여성농민은 우리의 먹거리 생산에서 절반이상을 담당하는 농업생산의 주체이다.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농산물 가격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을 펼쳐내여야 하며 더나아가 여성농민의 영농의욕을 북돋우는 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심각한 농촌탁아문제

젊은 층이 적은 농촌에서는 어린아기가 젖만 떼면 여성농민은 농사일을 하러 들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로 어린 유아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로한 노인네의 차지가 된다. 여기서 어린이는 초기 발달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 또 노인 어른은 어린아이을 어르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고 활동력이 강한 어린이는 좁은 방안에서 기어나가 마당을 헤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뛰어다닐 정도로 자라면 집안의 어른에게 떼를 써서 틈만 나면 동네로나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동네 아이들 근처를 맴돌면서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놀이감이 부족한 농촌에서의 아이들의 놀이 상대는 주변환경뿐이여서 아이들은 늘 위험한 속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농기계, 농약, 물에 빠지거나 논밭에서 뱀에 물려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생긴다.

농업생산만으로는 최소한의 생계조차 꾸려낼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은 매년마다 많은 숫자들이 이농의 현상을 보여왔었고 그로인해 폐허로 변한 농업은 노후인력과 여성농민 노동에 맡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농민들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여성농민은 농업노동 이외에도 가족의 생계유지와 다음해의 영농비 준비를 위해 농한기에도 파출부, 행상, 일용노동자로 나서야만 한다.
이렇듯 과다한 노동속에소도 여성농민들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사회의 봉건성과 가부장제의 온존으로 여성농민들의 지위도 낮아져 여성농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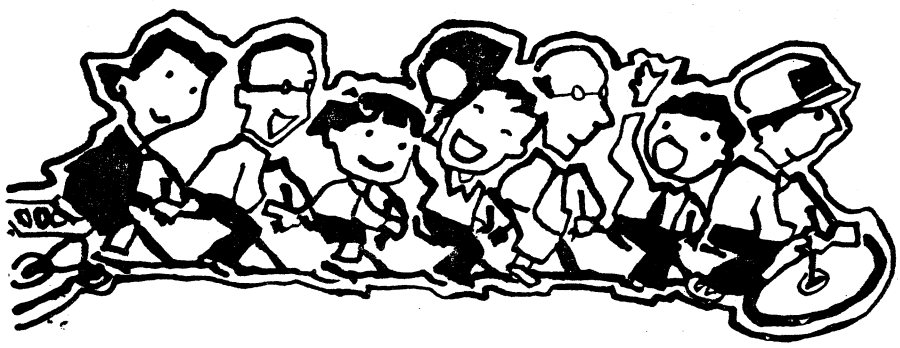
의사나 요구를 대변할 통로조차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농촌의 아이들은 어떠한가?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시키겠다는 꿈은 교육의 기회와 질이 도시보다 크게 떨어지는 농촌에서는 어렸을때부터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또 산더미 같은 일에 쫓기다 보면 농촌의 엄마들은 자식들 공부에 관심가질 시간이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돌아와 피곤해하는 아이들한테까지 집안일, 농사일 가리지 않고 시켜야하고 일년 내 땀흘려 번 돈을 거의 몽땅 교육비로 갖다바쳐야 하니 교육비도 큰 부담이 된다.
결국 농촌아동과 빈민지역아동은 처해있는 현실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화실조현상(특히 놀이감인 텔레비젼으로 인해 부모들에게 상대적 빈곤감과 자기소외 현상을 느낌), 교육기회의 불균등 등으로 중·상류층 아동에 비해 지능이나 신체발달면에서 뒤지게되어 성장과정을 거치 아동은 다시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면에서 낮은 위치에 자리하게 된다.

농촌탁아 문제의 접근은 아직까지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담은 움직임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지만 미수용인원은 늘 수용인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즉, 거의 모든 농촌 아동들이 방치된 채로 있는 것이다. 농번기 철에만 운용되어오던 탁아소 형태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촌탁아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에는 상설 탁아시설 확보에 대한 국·공립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보육료 책정시에는 농민의 어려운 가계형편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의 사업이 현실적이고 광범위해야 한다. 왜냐면 농촌탁아시설 및 교사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보육교사의 자발적인 생산의 움직임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향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적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교육내용을 함께 겸비한 욕구충족의 실현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정부에 바라는 여성농민 정책과제 제안

1. 여성농민정책의 기본 방향

① 실질적인 농업생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인력을 농업생산인력의 주축으로 육성해 야 한다.

②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적 지위향상에 발맞추어 농업부문에서 여성의 적극적 지위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③ 여성농민의 생산에 있어서의 주체화는 반드시 농업의 협업화, 가사노동의 사회화, 여성농 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복지대책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2. 여성농민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위한 정책과제

농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민이 전문경영인으로 육성되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때 우리 농업은 발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여성농민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농업주체화할 때 농업의 효과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1) 여성농민의 농업 생산전문인력으로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① (가칭)'여성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가족경영 내의 여성농민에게 경영 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여성을 농업중추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② 여성농민에 대한 교육 및 훈련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탁아시설 등을 갖춘 여성농민 전문교육기관 설립과 국비지원이 필요하며, 농업기술, 경영 관련 교육에서 여농의 처지와 조건 수준을 반영하며, 여성농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적절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유도가 필요하다. (연간 교육이수 목표치 설정 등)

③ 농업 생산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 여성노동력의 경우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밭농사에 집중되어 있다. 밭 농사와 관련한 생산 조건의 개선, 즉 밭 등의 경지정리, 구획화, 관개시설확충, 밭 농사용 농기구의 현대화,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여성농민의 체형에 맞는 농기계의 개발과 생산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여성농민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해야 한다.

- 2002년까지 여성을 구성원으로 포함한 영농조합법인을 전체 법인의 50%까지 올리

고 여성 경영자에 대한 정책자금 이자율 인하, 법인설립시 융자조건 완화, 여성의 영농조합 법인설 립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을 각 도별 연 1회 이상 설치한다.

⑤ 여성농민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 농업경영인, 전업농의 여성참여를 30%확대(할당제실시, 연령제한 완화등 선정조건에서의 우대조치)해야 하며, 육아로 인한 부분농업 참여 여성의 전업적 참여 지원을 위한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폭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⑥ 여성농민 생산자조직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 생산자인 여성농민들이 자신들의 농업 종사자로서의 권익실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조직 한 품목별 작목반 등 법인, 비법인, 민간 여성농민 생산자 조직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2) 여성농민의 농업주체인력화와 여농관련 정책시행을 위한 행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농림부 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시·군·도까지 담당부서를 설치하며, 실질적 인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여성농민관련 정책시행을 위해 정부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여성농민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여성농민의 복지수준의 열악함은 안정적 생산활동과 사회참여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례로 농촌지역의 육아·탁아문제의 개인적 해결부담은 젊은 여성농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노동에 참여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모성보호에 대한 개인적 해결은 여성건강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농업생산주체로서의 지위확보와 안정적 경제활동,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조성차원에서 여성농민에 대한 총괄적인 복지 대책마련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 실천을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어진다.

1) 농촌지역 육아·자녀교육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

① 2002년 면단위 1개소 이상 농촌형 육아·보육시설의 확충과 민간비영리 시설을 포함한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② 농민 자녀에 대한 육아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③ 농촌 교육현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농촌학교에 대한 제도적·법적지원책인 농어촌교육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농촌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일방적 폐교결정이 능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적은 수의

농촌 아이들이라도 양질의 교육조건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적 관점의 열린교육을 실현할 군단위 1개 이상의 초·중고 모범학교를 육성해야 한다. (177개 거점 우수고교 집중육성의 교육부계획은 입시위주의 근시안적 계획임)
- 교육환경개선(교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첨단교육기자재 설치 등)을 위한 교육비가 농촌학교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
- 우수교사확보를 위한 유인책(우대조치)을 실시하고 복식수업과 상치교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1과목 1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 농촌학교에 대한 방과후 아동지도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전면실시 되어야 한다.
- 농촌지역 모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학교통학버스'가 운영되어야 하며, 그 시설비와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 유치원교육을 공교육화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 농촌지역의 고교교육의무화를 우선 실현해야 한다.

④ 농촌지역 중·고교까지 의무급식확대 실시와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 1997년까지 학교급식을 고교까지 의무화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급식에 관한 학부모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여성농민의 모성보호 및 건강을 위한 제반대책을 실현해야 한다.

① 면·군(시)마다 보건소내에 여성농민평생건강관리 씨스템을 도입(센터설치)운영한다.

- 관할지역 임산부 전체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담당, 임산부 건강교실, 모자건강교실, 부인 암검사, 기형아검사, 정기검진, 예방접종, 초음파 장비설치, 순회검진, 영유아보건관리 등 종합적인 모성보건을 위한 정책을 실현한다.

② 산전·산후 90일 조리를 위한 출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의료보험통합일원화 실시와 함께 여성관련 항목에 대한 보험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

③ 농어민 연금에 있어서 농업의 공익성을 인정한 국가보조금을 증액하고 여성농민의 독자적인 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

④ 분만위급시 멀리 떨어진 대도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위험부담 해소를 위해 군(시)단위마다 수술장비를 갖춘 산부인과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제도 마련과 여성상담 보호시설이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⑥ 대행서비스제(Helpper System)가 도입되어야 한다.

- 출산후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모성보건증진을 위해 영농이나 가사를 대행해주는 제도는 농촌에서부터 시범운영되어야 한다.

3) 여성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① 각종 문화, 스포츠, 오락 시설과 프로그램설치, 사회교육(교양, 기술, 취미 등) 기능 전담시설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 시·군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여성회관이 비농민 여성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극복하고 여성농민의 참여를 높여내도록 해야 한다.

② 입식부엌, 목욕탕 설치, 상·하수도 설치와 관리, 쓰레기처리 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개선과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4. 여성농민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1) 농협에 여성농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여성농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농협법 개정(조합원, 대의원수의 할당, 직능별 이사제도입, 여성대의원 총회와 집행기구 설치)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여성농민의 사회적 법적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 등 각종 농업관련 위원회에 여성농민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 농촌에 남아있는 봉건적 악습폐지와 각종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교육, 농민교육, 각종 사회교육에 있어서 봉건 악습폐지와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4) 민간 여농단체에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참여 활동 의욕을 높여내야 한다.

분반활동, 이렇게 해보자!!

분반활동의 목적

분반활동은 농활의 꽃이라 불리웁니다. 그 이유는 농활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남기는 사업이 바로 분반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분반활동이 농활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남기는 이유는 농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과 과제를 처지와 조건별로 잘 풀어내기 위한 활동이 요구되어져 분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분반활동의 모습은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상을 받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농민분들마저 그것을 느끼고 계시는 현실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분반활동은 분명히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 스럽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반활동의 원래의 목적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가져간다면 훨씬 많은, 그리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남기게 될 것이며, '농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분반활동이 될 것입니다.

분반활동의 자세

우리가 분반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농민분들에게 주려고만 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분반활동을 형식적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이 드는 것은 아닐까요?

농민아저씨(?)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와서 우리를 가르치려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주머니들은 집안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학생들은 '도대체 과외선생이 온것인지 뭔지...'하고, 아이들은 '놀이선생님이 왔다. 그런데 잘 놀지는 못하더라....'라는 생각을 남기게 된다면!

그렇다면, 분반활동에 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첫째로, 농촌의 문제점과 현실을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전에 해 왔으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현실이 활동속에 녹아나게끔 고민하고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분반활동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물론, 학생회 간부들이 아닌 학우들입니다. 그렇다면, 분반활동의 주체는 바로 농민분들과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분반활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분명 학생들이지만, 농민분들을 주체로 세워내지 못한다면 결국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분반활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째로,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마을잔치에 맞추어 총화를 할 것인가를 짜임새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역량과 마을의 현실에 맞게 목표를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좋은 방안으로는 농활 전기간의 분반활동의 일별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반활동은 우리 청년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에서 보다 더 친근하게 농민분들을 만나는 방법이며, 농활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또한, 준비하는 학생들이 변화발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자, 분반활동! 이것만은 꼭 하자!

1. 분반 하루 계획서를 작성하자.

원칙으로는 농활 가기 전에 작성을 해서 가는 것이 올바르겠지만, 현실상 주체가 미비한 곳이라면 하루하루를 평가하면서 다음날의 계획을 잡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문화반장님들은 이것을 총화하고, 내일은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함께 고민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녁식사 시간에 반드시 분반의 하루계획이 마을방송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2. 감정적인 평가를 지양하자.

흔히 분반평가를 하자고 하면 '이랬는데 좋았어요'식의 평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무엇

이 좋았는지, 농민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의아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는 이러한 감정적인 평가는 분반활동 총화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활을 처음 와보는 새내기들 부터 분반의 주체를 맡고 있는 사람까지 구체적인 평가를 진행합시다.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다음날의 분반활동을 가늠하는 척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시간약속을 꼭 지키자.

분반활동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아동반의 경우, '11시까지 모이자.' 그랬는데 아이들을 바래다 준다며 30분을 훌떡 넘어서 오는 경우라든가, 청장년반의 경우 '형님들이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해서 청장년반만 제외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할 수 없겠지만, 지양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분반활동의 하루 내용을 반원들과 반드시 공유하자.

농활을 처음 수행하는 새내기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분반활동 도중 개인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청장년반... 술 먹기 힘들어서 도망나오거나, 여농반.... 지루해서 도망나오거나, 학생반, 별 할일이 없다고 해서 나오거나, 아동반.... 애들이 지겹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혼자 있다가 다시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끼리끼리 모여 담배를 피우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미리 분반활동의 내용을 새내기들과 함께 공유하여 알도록 한다면, 자기자신이 무엇을 해야할지를 알게 되고, 자기만 편하자는 생각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꼭, 하루의 내용을 분반원들과 공유하고, 평가하도록 합시다.

5. 마을잔치를 명실상부한 분반활동의 총화지로!!

마을잔치는 9박10일간의 힘들었던 농활의 회포를 푸는 자리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한 돼지잡아 먹고 노는 잔치도 아닙니다. 명실상부한 분반활동의 총화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반활동의 성과들을 녹여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장년반의 의식화 정도를 노래가사바꾸기로 시행했다면, 그 노래를 공연할 수 있는 마을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아동반 아이들이 춤과 노래를 공연하는 것을 전 분반으로 확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성농민반 분반활동

여성농민반 활동을 왜 해야만 하는가?

여성 농민이란 이 땅 민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산의 주인, 생명의 어머니로 바로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검은 얼굴, 고목 같은 손을 지닌 우리의 친근한 아주머니, 할머니들이십니다. 농활 기간 중 가장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사람은 여성 농민입니다. 농활 중 학생들에게 가장 호의적이며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이것저것 신경서 주시고 학생들에게 반찬 한가지라도 갖다 주시려는 모습, 피곤한 몸을 누이고 싶은 간절한 생각에도 학생들 생각에 분반 활동에 적극적이시던 모습. 바로 우리 여성 농민의 모습입니다.
여성 농민들은 가정, 사회, 국가로부터의 소외뿐 아니라 농민 정책 속에서도, 여성들 사이에서조차 불평등을 느끼는 계층입니다. 이제 정부가 우리 나라의 식량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며 통일을 대비하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 한다면 농업의 절반을 담보하고 있는 여성 농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고민과 인력 개발을 위한 구체적 의지와 정책 실현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또한, 앞으로 농업, 농촌 기본법이 제정과 더불어 여성 농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역시 절실합니다.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또다시, 가장 먼저 축소되고 유보되어야 하는 것이 농업 부분이라면 이제 국가의 미래는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성 농민이 희망과 의욕을 갖지 못하는 농촌과 농업은 결코 지속될 수 없음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허리 두드릴 틈도 없이 고조선 시대에나 21세기인 지금에나 호미를 들고 밭을 일구는, 죽을 때까지 제대로 대접 한 번 받아 보지 못하고 일만 하는 소중한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짧은 농활 기간이지만 그분들의 삶을 피부로 느끼고 어머니들의 개선될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민회의 건설과 강화를 통해 여성농민의 목소리를 모아내어야 한다. 소리내지 못했던 여성농민의 현실을 구체화된 소리로 만들어 내기위해 여성농민반의 활동이 중요하게 제기되어 지는 것이다.

여성농민반의 의의

전체 농업인구의 60%, 농업생산력의 72%를 담당하는 여성농민은 당당한 농업생산 노동

의 주체이다. 하루 평균 18시간을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으로 보내고 있다. 봉건적인 농촌사회 속에서 가사노동의 전담자,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희생자, 노동력 수탈대상인 농촌을 살아가는 여성농민은 3중의 모순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다

여성농민은 힘든 노동과 어려운 살림에 찌들어 자신을 억압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도 없으며 현실에 체념하고 살아가시기에 하루 아침에 변화되기 힘들다. 하지만 여성농민은 더디더라도 그들이 단결하여 일어섰을 때는 거대한 힘이 된다는 것을 각인하고 여성농민의 현실을 이해하고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여성농민반 활동은 이러한 여성농민들과 학생이 함께 하여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적 성과를 남기는 장이다. 여성농민회는 여성농민반 활동을 통해 여성농민을 조직화 해내고 학생은 민중성과 계급성을 배워 단련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첫째, 농활준비는 우선 주체를 잘 세워야 한다.

일꾼 단련의 유력한 공간이며 대중조직화 공간인 농활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준비과정에서부터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춤 잘추고 노래 잘 부르는 것만을 기준으로 주체를 세워서는 안된다.

둘째, 여성농민 현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료) 농민 이야기 주머니(대동), 여성학 강의, 여자는 왜, 여성농민 위대한 어머니, 전여농자료 '여성농민', 여성농민의 현실(시청각)

또한 농민문제 본질과 농민운동의 현황 및 과제를 공부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농활을 가는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농활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해 봅시다.

세째, 미리 알아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전년도 담당한 사람으로부터 이월을 받든지 아니면 사전 답사시 알아와야 합니다.

☼ 여성농민에 대한 기본사항 - 여성농민 숫자, 연령대, 문맹율, 자녀수, 주요 노동, 일거리, 전반적인 일과표, 잘 모이는 그룹, 연령별 모임, 잘 모이는 장소

☼ 부녀회 - 부녀회 모임 유무, 횟수, 모임내용, 부녀회장의 성향과 영향력, 그 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 여성농민회 활동 여부 - 여성농민 교육이나 농민 교육 실시 여부, 투쟁참여 유무, 전

체적인 의식성향

☼ 여성농민반 활동 - 이전 농활 경험유무, 여농반 활동 유무, 마을여성농민들의 주요문제, 분반활동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사람. 그리고 시간대와 장소

☼ 주의할 점은 부녀회장님과 이장님을 통해 활동의 공식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상황이나 여성농민들의 현실, 그리고 학생들 준비 정도에 기반하여 올바른 목표 수립과 활동 내용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자, 이제 준비가 끝났다면 여성농민반 활동을 들어가볼까나?

근로시 대화는 끊이지 않도록 합시다.

본 활동시 근로활동은 먼거리에서 여성농민과 일할때는 노래를 부르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이야기를 합시다. 주제는 가벼운 소재, 살아온 이야기나 아이들 이야기 등등으로 하고 대화가 끊이지 않게 조정합시다.

분반활동은 사전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을 방송을 하든지, 게시판에 대자보를 이용하든지, 분반대원들이 마을로 흩어져 적극적으로 모셔오는 방식 등을 병행합시다. 여성농민의 처지상 매일 전체모임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호별방문을 적극 활용하여 여성농민을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농반 운영은 **미리 준비한 일정표를 최대한 활용하고 여성농민회에서 준비하는 강연도 적극 활용하여 성과를 남기도록 하면 더욱 좋겠지요.**

우천시 활동을 미리 계획합시다.

엄마들을 모이시게 하거나 모인곳으로 찾아가기, 또는 우천에 대비한 예비 프로그램이 미리 준비 되어 있다면 좋겠죠?

✓ 참고 - 이야기 거리

☼ 현 정세에 관하여 - 무작위한 이야기들을 나열하기 보다는 간결하게 이야기를 풀어갑시다.

배웠던 노래가사에 나오는 이야기, 텔레비젼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 농업, 농민문제 - 올해 여성농민회의 과제를 중심으로.

☼ 살아온 이야기

☼ 청장년반과 마찬가지로 올해 학생운동의 투쟁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

☼ 그 지역의 문제

☼ 왜 자신이 농활을 왔는지, 느낀 것은 또 무엇인지.

☼ 이전에 경험이 있는 지역이라면 투쟁경험담도 들어보자. - 쌀수입반대투쟁, 수매가인상투쟁

여농주체분과 공동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농활일정이 끝나면 여름농활 평가를 실시해서 이월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농활이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후속활동을 진행합시다. 후속활동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농활이 끝난 후에도 여성농민 초청강연 등을 하든지, 가을 단과대 축전등이 있을 때 집단적인 초청사업을 벌인다든지, 편지를 보내거나 안부전화를 드려 농활시기 가졌던 연대의 끈을 놓치지 않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 생활수칙 ★

1) 자세

안일하고 낭만적인 감상주의적 태도 불식

농민들을 대상화 시키지 말 것

조급하고 성급한 태도는 금물

자체 훈련을 통한 농업·농민 문제 / 여농문제 숙지

유연성과 끈기

유머감각과 낙관적인 태도

농민에 대한 사랑과 신뢰

2) 생활수칙

화려하지 않고 활동과 세탁이 간편한 옷과 신발 준비

단정한 머리

식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음식이 남지 않도록 준비하고, 시작과 끝은 모두 함께

술은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좋고 마실 경우 취하지 않도록 주의

담배 주의할 것

주변정리 잘하기, 특히 농활을 마치고 돌아갈 때 정리정돈 잘할 것

인사잘하기 / 존대말 쓰기

남·녀관계 주의

농민들의 생활 방식과 수준에 맞추도록 하자

책임자의 지시에 잘따르도록 하고 대원들끼리 모였을 때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도록 하자.

★ 후속활동을 준비하자 ★

후속활동을 잘 하는 것은 농활의 성과를 어떻게 조직의 결과로 남기느냐하는 문제이다. 농활의 과정에서 발굴된 주체인 여성농민들을 조직적으로 연결시켜내고 각자의 의식을 높여내는 일이 필요하다.

① 면과 군단위의 단합대회나 수련회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자.
② 농활 후 농활지역 여성농민들을 대상으로한 자료보내기 활동을 하자
③ 농활 후 여농운에 관심있는 학우들이 모여 지역여농과의 연대방안을 마련하자.
④ 농활 기간중에 친숙했던 여농분들과의 편지쓰기와 전화연락을 가지자.

잠깐 고양

◀◀여성 농민 분반 활동 프로그램▶▶

1. 놀이게임

♣ 동료 소개하기

준비: 종이, 연필

1. 2명씩 짝을 짓는다.(학생들과 어머님, 나이 많으신 분과 젊으신 분 등등의 형식으로)

2. 짝을 지은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자기 소개를 한다.(시간은 5분 정도)

3.서로 소개가 끝나면 전체 발표때 상대방을 소개한다.

♣ 보물찾기

준비: 종이, 연필

1. 종이를 3등분으로 접어 가운데 칸에 나의 모습을 그리고, 왼쪽 칸에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을, 우측에는 이후에 갖고 싶은 나의 보물을 5가지 정도 적는다.

2. 이 작업이 끝나면, 종이배를 접어, 노래(풍당풍당, 농민가)를 부르면서 옆사람에게 돌린다.

3. 노래가 끝난 후 자기에게 전달된 종이를 펴서 상대방의 자화상과 보물을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모두에게 설명한다.

4. 설명이 끝난 후, 그 종이의 주인을 알아맞힌다.

♣ 아리랑 고개 넘기(나의 인생 곡선)

준비: 종이, 연필

1. 먼저 종이 한 장씩 나누어주고 종이 중앙에 직선을 긋는다.

2. 직선 위에 태어났을 때, 현재, 죽을 때의 3개의 점을 찍는다.

3. 그리고 차분히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본다.

4. 그때 그때의 기분을 다시 새겨 본 후 기뻤을 때는 선 위로, 슬펐을 때는 선 아래로 점을 찍어 날짜와 그 내용을 적는다.

5. 아주 기뻤을 때는 점을 더욱 위로 찍고, 아주 슬펐을 때는 점을 더욱 아래로 찍는다.

6. 점과 점을 연결하면 아리랑 곡선이 만들어진다.

7. 작성된 아리랑 고개를 가지고 전체 발표를 한다.

♣ 사진 찍어 드리기

준비: 사진기

어머님들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별로 찍을 기회가 많지 않다. 단체 사진과 함께 한분 한분의 얼굴을 사진에 담아 보자. 이후 마을 잔치나 활동중 포토제닉상을 드리거나 자기소개 시간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 도전 50곡

준비: 개사곡등과 민요 가요등 50곡을 적은 판, 반주가 가능한 모든것

노래하고 춤추시기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에게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 같다. 게임 형식으로 준비하여 어머님들과의 만남의 장을 신명나게 가져가자.

♣ 노래 이어가기

1. 동아리를 3-4개 정도로 나눈다.
2. 진행자가 " 동요이어부르기" 하면 먼저 지적당하는 동아리부터 동요를 부른다.
3. 동요를 다 부르기 전에 진행자가 다른 동아리를 지적한다. 지적 당한 동아리는 처음 부른 것이 아닌 다른 동요를 불러야 한다.
4. 만약에 같은 노래를 두 번 부르면 벌칙을 준다.
5. 이런 방식으로 대중가요 이어부르기, 민요 이어부르기 등을 한다.

♣ 소지품이어가기

1. 먼저 두패로 나눈다.
2. 정해진 시간내에 빨리 그리고 길게 각 패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옷, 지갑, 혁대, 동정, 신발, 볼펜, 양말, 공책등 경우에 따라서는 속옷까지)을 늘어놓는다. 협동으로 놀이도 즐기며, 또한 놀이에 사용된 지폐나 동전은 뒷풀이때 술값이나 안주값으로 사용할수도 있다. 소지품잇기의 평가기준은 어느 동아리가 더 길게 이었나로만 하지말고 겉옷은 10점, 속옷은 20점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동아리원의 헌신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좋다.

♣ 말잇기 놀이

1. 삥 둘러앉아 진행자가 한 단어를 말하고, ♣◉◈의 ♣를 맨끝으로 보내면 ▣◐▩♣식으로 이어말한다.
2. 시간은(10초)내외로 하되 틀리면 빠져 등수정하고 1등은 시상, 꼴등은 벌칙을 내린다.

틈틈이 쉬어 가는 건강 교실

♣ 가벼운 두통 해소법

특별한 질환은 아니면서 왠지 머리가 무겁고 아픈 경우는 머리 주변의 울혈이 원인이다. 양손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양쪽 관자놀이를 세게 누르도록 한 다음, 머리 뒤에 있는 목덜미의 움푹한 곳 양쪽 1센티미터 되는 곳에 양손의 엄지 손가락을 둘러대고 자기의 머리를 잡아 올리듯이 세게 누르도록 한다. 이렇게 5-6차례 계속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두통이 사라진다.

♣ 기침을 멎게 하려면

기침이 계속해서 나올 때 인지로 귓밥 아랫부분을 힘주어 눌러본다. 귓밥을 힘껏 누르면 그 아픔 때문에 기침을 일으키는 신경을 자극해 기침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 구기자 달인 물로 탈모를 방지한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은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머리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구기자가 좋다. 구기자 잎을 달여 이 물로 머리를 감는다. 장기간 계속하면 효과가 있다.

♣ 손바닥 자극 민간요법

잠자기 전에 손바닥을 서로 비벼 주면 숙면할 수 있고 다음날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을수 있다. 양 손바닥을 강하게 비벼 주면 손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붉은 빛이 돈다. 이것은 손바닥의 혈관이 자극을 받아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이다. 잠자기 전에 1-2분 정도 이부자리에서 누워 실시한다.

♣ 손바닥 치기

아침에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면 머리와 몸을 강화시킨다.

손바닥 한가운데는 심장의 작용을 도와 뇌의 작용을 활성 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곳을 강하게 자극하면 뇌의 작용이 활성화되어 일어나기 힘든 아침에도 눈이 번쩍 떠지고 졸음을 쫓아내는 작용을 한다.

아침에 이부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양손을 머리 위로 높이 쳐들고 손바닥끼리 세게 3번정도 쳐준다. 그리고 이번에는 앞으로 곧게 뻗은 다음 세게 3번 정도 쳐준다. 팔이 구

부러지면 안되고 손바닥은 꼭 맞게 쳐야 한다.

♣ 어깨 결림

어깨 결림을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자극법으로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사이에있는 합곡, 또는 손등에 있는 둘째손가락과 셋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결정점으로 이 합곡과 결정점을 자극하면 어깨 결림을 풀 수 있다.

♣ 이쑤시개로 자극하는 방법

이쑤시개를 10개정도 묶어 이것으로 손등이나 손바닥을 자극하면 이쑤시개의 날카로운 부분이 손의 혈관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가볍게 손바닥이나 손등 전체를 3초동안 눌러 주었다가 떼고 하는 방법을 반복하면 체력이 향상된다.

♣ 발을 삐었을땐 소금찜질

보통 중증이 아니라면 휴식을 취하면서 가벼운 찜질만해도 3-4일이 지나면 자연스레 낫는다. 찜질을 할때는 반드시 처음 2일간은 냉수로, 그뒤에는 따뜻한 물로 해야 한다. 붓기가 다소 심하다면 자기 전에 소금과 밥을 이겨 붙이는 게 도움이 된다.

(방법) 밥 한 주먹 정도의 분량에 소금(천일염) 한 숟가락(보통 밥먹는 숟가락) 정도를 넣고 잘 이겨서 떡처럼 만든 뒤에 다친 부위에 0.5㎝ 정도 두께로 붙인다. 밥이 이불에 묻지 않도록 천이나 랩 등으로 싸서 붙이고, 잘 때는 다친 다리를 베개 등으로 높이는 게 좋다.

보통 2-3일정도 반복하면 잘 낫는데, 침을 함께 맞으면 치료 효과가 훨씬 빠르다. 약재로는 대황이나 치자를 이용하는데 간혹 피부가 짓무르거나 붓기가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압박 붕대는 다친 정도가 심하거나 무리하게 활동을 해야 할 때가 아니면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혈액 순환을 방해하므로 불가피하게 압박 붕대를 하더라도 밤에는 풀어 놓는 것이 좋다. 염좌는 쉽게 재발하기 때문에 다 나은 뒤에도 2-3일 정도는 무리한 운동을 삼가야 한다. 또 지낼 만하다고 방치하는 것도 금물이다. 걷는 자세가 부자연스러워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심각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체조 합시다

머리에서 열이 나고 얼굴이 확확 달아 오른다. 가슴이 답답하면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른다. 만사가 귀찮고 불안하며, 항상 배와 손발이 차다. 머리는 항상 뜨겁고 가슴은 답답하며 아랫배와 손발은 차가운 것이다. 또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두통과 가슴 통증은 물론 소화장애, 어지러움, 오한, 변비, 귀울림, 생리불순, 불면 등 각종 신체적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1단계- 심호흡 하기

발을 어깨만큼 벌리고 두손을 하늘을 향해 뻗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 마신다.몸의 힘을 빼고 상체를 아래로 숙이면서 숨을 내쉬는 동작을 3~4차례 반복한다.

2단계- 몸통 틀기

두팔과 머리를 메 멧 산(山)자 모양으로 고정시킨 자세에서 상체를 좌우로 회전시키는 동작을
50여차례 반복한다.

3단계- 가슴뼈 누르기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가운데 있는 가슴뼈를 따라 위에서 아래로 누르거나 비벼준다. 특히 아픈지점을 집중적으로 풀어준다.

4단계- 가슴 두드리기

두 손바닥으로 목 아래에서 가슴까지 골고루 두드린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가슴 한가운데를 두드리면서 '아'하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

5단계- 아랫배 치기

선 자세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린다. 두손을 어깨 높이로 들었다가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100차례정도 힘껏 내리친다.

6단계- 장 운동

단전치기와 같은 자세로 눕는다. 두 손바닥을 단전 위에 올려 놓고 배를 내밀었다 당기

는 행위를 50차례 반복한다.

7단계- 기운 쓸어내리기

두손을 비벼서 열을 낸 뒤 몸에서 3㎝정도 거리를 유지한다. 머리의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내려 보낸다는 기분을 갖고 머리에서 가슴, 아랫배까지 쓸어 내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8단계- 발바닥 자극하기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바닥에 붙이고, 발바닥을 마주보게 했다가 바깥쪽으로 뻗은 다음 다시 속도를 붙여 발바닥을 마주치는 동작을 반복한다.

9단계- 정리 운동

아주 편한 자세(의자에 앉거나 반가부좌 또는 눕는 자세)에서 숨을 마실 때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내쉴 때는 탁한 바람이 나간다는 기분으로 10여분 동안 숨쉬기 운동을 한다.

다함께 부를수 있는 재밌는 노래

♪. 진주난봉가

울도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삼년만에
시어머니하시는 말씀 애야 아가 며늘 아가
진주낭군 오실 터이니 진주 남강 빨래가자

진주남강 빨래가니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우당탕탕 빨래 하는데 난데 없는 말굽소리
고개들어 힐긋보니 하늘같은 갓을 쓰고
구름같은 말을 타고서 못본 듯이 지나더라

흰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빨래는 검게 빨아
집이라고 돌아와보니 사랑방이 소요하다.
사랑방에 나가보니 온갖가지 음식에다

기생첩을 옆에 끼고서 권주가를 부르더라

이것을 본 며늘아가 사랑방을 들러나와
아홉가지 약을 먹소서 목 메달아 죽었더라
소식들은 진주낭군 버선발로 뛰어나와
내 이럴줄 왜 몰랐던가 사랑사랑 내 사랑아

하룻정은 삼년이요 본댓정은 백년인데
내 이럴줄 왜 몰랐던가 사랑사랑 내 사랑아
어화둥둥 내 사랑아

♪. 아스팔트 농사

일년내내 씨뿌리고 뼈빠지게 거두어서 /
보리농사 망하고 고추농사 조지고 남은 것은 빚더미뿐
이 세상에 지어먹을 농사가 하나있어
여의도의 아스팔트 해방농사 지어보세
너살리고 나살리는 아스팔트 농사 이 농사가가 최고로세
농민해방 앞당기는 단결투쟁 농사 이 농사가 최고로세
사람답게 살겠다고 죽자사자 일을 해도
사람구실 못하고 이내신세 조지고 남은 것은 쭉정이뿐

♪. 농민세상 찾아서

우리농민 일어나세 해방의 춤을 덩실 추며
물러가라 양키놈아 내 땅에 내가 가네
대동추쟁 주저하면 외세놈들 판을 치네
쓰러지지 말고 가자 너와 내가 손잡고 우리 세상 찾아서
농민형제 진군이다 투쟁의 노래 부르며
속터져서 못살겠네 농민살길 찾아가세
통일세상 살고 싶소 하나된 세상 이뤄보세
철조망을 걷어내고 통일농사 지어보세

♪. 땅파고 사는 인생- 사는게 뭔지

사는게 무엇인지 팔자가 무엇인지 아직 알수 없지만 추수가 끝난후에 후회하지는 않겠어 농사짓는 팔자를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후회하는 거라고 하지만 투쟁않고 힘없이 살아간다면 더욱 후회하는 거라고 투쟁을 하면서도 후회않고 한평생을 사는 사람아 땅파고 사는 인생 힘들어도 투쟁하며 살아가리라

♪. 여성농민 차차차- 차차차

가세 가세 경운기타고 공판장으로 나아가세 피땀흘린 나락싣고 공판장으로 나아가세 여성농민 똘똘뭉쳐 차차차 일반벼 전량수매 차차차 여성농맨 일어섰다. 농민갈길 찾아가세 차차차

♪. 여성농민 만만세- 손이 꽁꽁

여성농민들 우리 다함께 농민살길 찾아보세 우리가 먼저 깃발들고서 농민해방 만드세 어디서 농민말살 시작했는지 미국놈인지 김영삼인지 너무너무 얄미워 여성농민들 일어납시다. 농민해방 위하여 우리가 먼저 수입농산물 막아내야 합니다.

♪. 찬찬찬

몸배옷 걸쳐입고 굳센 팔둑에 황토벌판을 일구는 나는야 여성농민 농사일 집안일로 내 몸은 만신창이 되어버려도 희망을 느끼면서 다가선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수입개방 자행했던 영삼이 동아을 농촌을 만들겠다는 그말 떠나간 농촌 슬쓸히 들판을 보니 주루룩 주루룩 주루룩 밤새워 흘리는 눈물

♪. 논둑길-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밭둑을 지나 바람부는 논둑길을 지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 애타는 마을에 방문을 열면 쌓여 있는 집안 일거리 언제나 내게 언제나 내게 밀려드는 많은 고민들 밀려드는 수입농산물 빛깔 좋은 신·농·정 머물지 못해 떠나가지만 나는 지·킬·래 오늘을 통일 축전 내일은 투쟁 농사일 힘이 들지만 이땅의 주인 내일의 희망 우리는 진짜 농사꾼

여성 농민반 답사 조사서

1. (　　)군　　(　　) 면　　(　　) 마을 만난 사람 (직책,나이 성명) :					
2. (　　) 대학　　(　　) 단대　　(　　) 과　조사자 : (　　)					
3. 마을을 여성농민 상황 파악					
여성농민의 숫자		마을 전체인구 중 비율			
연령대	20 대	30 대	40 대	50대	60대 이상
여성농민의 문맹율		한가구당 일반적인 자녀수			
잘 모이는 그룹은 있는가?	(예 , 아니오)	구성되는 사람들		잘 모이는 장소	
마을 여성농민의 일반적인 하루 일과					
여성농민의 주요 일거리					
4 마을 부녀회 파악					
부녀회의 유무	(있다, 없다)	부녀회의 모임 횟수		모이는 연령대	
부녀회장의 영향력		그외에 영향력 있는 사람			
5. 마을 여성농민회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까?					
마을, 면, 군단위 여성회원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다면 누구입니까?					
6. 이전에 농활을 받아본 마을이면 여성농민반의 활동은 어떠했고 어머님들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7. 마을 여성농민들에게 현재 부각되는 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8. 농활 여성농민반 활동에 마릉 여성농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9. 여성농민반 활동에 대하여 논의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0. 여성농민반 분반활동이 가능한 시간대는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여성농민반 분반활동 일지

월 일 요일	농활 째날
오늘의 계획	준 비 물
호별방문 활동내용	분반모임 활동내용
만남 사람, 대화 내용, 평가 내용을 적는다	모임내용, 토론내용, 시간, 장소, 평가
오늘의 평가 및 결정 사항	

여성농민반 분반활동 일지

월 일 요일	농활 째날
오늘의 계획	준 비 물

호별방문 활동내용	분반모임 활동내용
만남 사람, 대화 내용, 평가 내용을 적는다	모임내용, 토론내용, 시간, 장소, 평가

오늘의 평가 및 결정 사항

여성농민반 분반활동 일지

월 일 요일	농활 째날
오늘의 계획	준 비 물
호별방문 활동내용	분반모임 활동내용
만남 사람, 대화 내용, 평가 내용을 적는다	모임내용, 토론내용, 시간, 장소, 평가
오늘의 평가 및 결정 사항	

여성농민반 분반활동 일지

월 일 요일	농활 째날
오늘의 계획	준 비 물

호별방문 활동내용	분반모임 활동내용
만남 사람, 대화 내용, 평가 내용을 적는다	모임내용, 토론내용, 시간, 장소, 평가

오늘의 평가 및 결정 사항

여성농민반 분반활동 일지

월 일 요일	농활 째날
오늘의 계획	준 비 물

호별방문 활동내용	분반모임 활동내용
만남 사람, 대화 내용, 평가 내용을 적는다	모임내용, 토론내용, 시간, 장소, 평가

오늘의 평가 및 결정 사항

여성농민반 분반활동 일지

월 일 요일	농활 째날
오늘의 계획	준 비 물

호별방문 활동내용	분반모임 활동내용
만남 사람, 대화 내용, 평가 내용을 적는다	모임내용, 토론내용, 시간, 장소, 평가

오늘의 평가 및 결정 사항

여성농민반 분반활동 일지

월 일 요일	농활 째날
오늘의 계획	준 비 물

호별방문 활동내용	분반모임 활동내용
만남 사람, 대화 내용, 평가 내용을 적는다	모임내용, 토론내용, 시간, 장소, 평가

오늘의 평가 및 결정 사항

여성농민반 분반활동 일지

월 일 요일	농활 째날
오늘의 계획	준 비 물

호별방문 활동내용	분반모임 활동내용
만남 사람, 대화 내용, 평가 내용을 적는다	모임내용, 토론내용, 시간, 장소, 평가

오늘의 평가 및 결정 사항

여성농민반 분반활동 일지

월 일 요일	농활 째날
오늘의 계획	준 비 물

호별방문 활동내용	분반모임 활동내용
만남 사람, 대화 내용, 평가 내용을 적는다	모임내용, 토론내용, 시간, 장소, 평가

오늘의 평가 및 결정 사항

여성 농민반 활동 평가 보고서

1. 농활 지역	( ) 군	( )면	( ) 마을			
2. 농활 주체	( )대학	( ) 단대	( ) 과			
분반장	( )학번 이름 ( )	분반원				
3. 마을 여성농민의 개괄적 상황						
연령별 구성인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잘 어울리는 연령별 성향 및 그룹별 성향						
중심인물	연락처	부녀회의 상황				
4. 농활 준비과정 요약 (대원 교양, 답사, 여농조직와의 연대, 내용 준비등)						
5. 본활동 과정 요약 (프로그램 내용 및 호별방문, 일정 진행등)						
6. 총 평가						
7. 후속활동 계획 (여성농민 조직 주체와 여성농민 대중과 학생주체 및 대중끼리)						